

돈 없어 병원 못가는 비율 전국 최고...‘노인의 날’ 더 서글픈 광주·전남 노인들

기초연금 등 대선 복지 공약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아파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 비율이 전남(15.3%)은 전국 최고, 광주(13.5%)는 광역시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지역 노인 3명 중 2명은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으며 생활비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인의 날(2일)’을 맞은 광주·전남지역 노인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전안 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노인의 미치료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노인 비율은 전국 평균 11.4%였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를’은 최근 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충남이 14.4%로 뒤를 이었고, 광주도 13.5%로 전국 시·도 중 세번째이자 광역시에서는 가장 높아 적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노인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농촌 지역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이 1일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남은 78.6%, 광주는 74.1%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10여년 전

인 2002년과 비교해 전남은 35.5%포인트, 광주는 24.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전남 67.8%, 광주 57.4%로 모두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인구 증감 추이와 경제 활력 정도를 대변하는 65세 이상 고령화

■ 2012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노인 미치료를 (단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11.3	9.5	11.1	11.1	13.5	7.2	12.6	9.9	평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3	13.2	14.4	10.9	15.3	12.1	11.7	12.4			

(자료: 질병관리본부)

비율은 전남이 21.5%로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광주는 10.1%로 전국보다 2.2%포인트 낮았고, 고령화 속도도 광역시 중 가장 느렸다.

양승조 의원은 “최소한의 노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과기해 어르신들께 걱정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창학 67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민립대학으로서 호남의 대표 사학인 조선대의 차기 이사회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란과 잡음에 휩싸여있다.

임기 끝난 이사진 버티기가 분쟁 씨앗

뉴스 초점 사상 초유 '이사 부존재' 10개월...다시 흔들리는 조선대

학생·교수 반발...“자리 지키기 ‘꼼수’ 이사 전원 사퇴해야”

조선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22년 동안 일사이사(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 2009년말 정상화됐던 조선대가 정이사 체제 4년 만에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선대는 학내민주화운동인 1987년 1·8항쟁으로 인해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22년 동안 일사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이 기간 학교 구성원의 피

나는 노력과 지역 사회 성원에 힘입어 2009년 12월31일 정상화를 이뤘다.

이후 3년여 동안 지역 거점 사업대로서 재도약을 준비하던 조선대는 올 초부터 ‘이사 부존재’라는 내부 약제에 시달려왔다. 현 이사(8명)들의 임기가 만료된 지 10개월이 다돼 자격 시비 논란이 거센데다 이번에 뽑은 결원이사(1명) 선임에 대해 구성원

상당수가 반발하면서 조선대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연임 욕심 꼼수’ 이사회, 법적·도덕적 책임 물어 사퇴시켜야=조선대 이사회가 지난해 말부터 끌어왔던 차기 이사회 구성을 위해 결원이사 1명을 선임했지만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사회는 정원 9명 중 결원이사(1명) 선임에 대해 구성원

이다. 이중 6명은 임기가 끝난 지 10개월, 2명은 6개월이 됐다.

임기만료된 이사회는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정원 9명의 차기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8명 중 5명만을 이사로 재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이 연임을 바라면서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뤘고, 이에 대한 학내외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결원이사 1명만을 뽑은 것이다. 그나마 선임된 이사가 학내 자치기구들로부터 옛 경영진측과 이어진 인물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면에 계속>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F1 코리아 그랑프리 D-2

귀하신 몸 그들이 온다



세바스티안 페텔 페르난도 알론소 마크 웨버

F1 코리아 그랑프리(4~6일) 개막을 사흘 앞두고 100여원이 넘는 ‘머신’이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반입되고, 선수들의 입국이 시작되는 등 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올해는 특히 새로운 ‘F1 황제’ 제바스티안 페텔(레드불)의 3년 연속 한국대회 우승 여부가 최고의 관심사다.

페텔은 현재 드라이버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가 획득한 랭킹 포인트는 247점으로 2위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의 187점보다 60점을 앞서 있다. 페텔이 한국 대회마저 우승한다면 사실상 시즌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F1 그랑프리에서는 1위를 하면 랭킹 포인트 25점을 주고 2위 18점, 3위 15점 식으로 이어진다. 올해 남은 대회는 코리아 그랑프리(포함해 6개)다.

이 때문에 알론소가 60점 차를 따라잡으려면 한 차례 대회마다 평균 10점씩 간격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알론소가 6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고, 페텔이 3위 이하의 성적을 거둬야만 역전이 가능하다.

100억대 머신 반입

페텔·알론소·웨버 등

드라이버들 속속 입국

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앞서 열린 13개 대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대회에서 우승한 페텔을 상대로 10점 차를 꾸준히 좁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페텔은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대회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 연달아 우승해 올해 대회에서 3연패를 노린다.

이들 외에 한국대회 우승이 점쳐지는 드라이버는 레드불 소속의 마크 웨버(호주)와 니코 로스베르크(독일) 등이 있다.

웨버는 최강팀 레드불에서 페텔의 그늘에 가린 ‘비운의 2인자’다. 이 때문에 페텔과 펼치는 내부 경쟁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그는 시즌 챔피언을 차지한 적은 없었지만 레이스마다 10위권 바깥으로 좀처럼 밀려나지 않는 꾸준한

을 보였다.

로스베르크는 그동안 코리아 그랑프리와는 인연이 없었다. 첫 대회였던 2010년 중도 기권했고 2011년 8위, 지난해에는 또 레이스 완주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세 차례 대회에서 4위(벨기에), 6위(이탈리아), 4위(싱가포르)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올해 한국 대회에서의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

이 밖에 메르세데스에서 활약하는 루이스 해밀턴(영국)의 핀란드 출신 베테랑 드라이버 키미 라이코넨 등이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22명의 드라이버는 1일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2일부터 현지 적응 훈련과 공식 인터뷰 등에 참석한다.

/오광록기자 kroh@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10월호

9월 27일 발매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뜨거운 커피홀릭

‘마시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된 커피의 세계 탐구

- 음료산업, 커피에 종속되다
- 카페, 문화가 되다
-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커피 예찬’

기획

시민들은 문화가 필요해

광주 전남 문화지수 점검과 대안 문화도시 이끈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 도시의 오아시스,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예향 초대석

『정글만리』로 저력 다시 확인시켜준 승주 출신 작가 조정래의 문학과 창작 뒷이야기

마주앞은 책과 삶

뛰어난 그림 이야기꾼 **이주헌**
그림 보는 눈을 밝혀준 책들과 좋은 그림에 대한 생각

이달의 아티스트

“전라도 DNA 자랑스럽다”
한국 남성들에게 멋을 입힌 **디자이너 장광호**

이사람

형님리더십으로 LG트윈스를 11년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시킨 **광주출신 감독 김기태가 말하는 ‘좋은 야구’**

여행 투어

역사를 마주하는 **성찰의 도시, 베를린**

문화공간

티벳불교의 깊은 정신과 문화를 만나다
대원사 티벳불교박물관

스타 데이트

‘너목들’ 차변 넘어 ‘이젠 나쁜남자’ 욕심내는 **배우 윤상현**

화보

사진에 담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문화 진단

‘아트광주13’ 발전 가능성 보여줬다

아트 & 피플

고전발레 안무작 안무로 재 탄생시켜준 **발레 안무가 문병남**

문화동행, 편편 클럽
‘바람 좋은 날’ 바다로 가는 사나이들 **광주윈드서핑 연합**